

천연염색 텐셀 이색연사를 이용한 섬유제품

최근 시노하라 텍스타일(주)은 위사에 장미 등과 같은 천연염료로 염색된 텐셀 100 % 이색연사(grandrelle yarn; 색이 다른 단사를 2올 또는 3올을 꼰 의장연사의 일종으로, 2색 또는 3색의 실을 합연한 연사)를 사용한 섬유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제품은 원래 경사에 면사(Ne 40) 및 위사에 텐셀사를 사용한 것으로, 인디고 염색 또는 백색 원단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외관이 아름다워 셔츠용 원단으로 채택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새로 개발된 텐셀 이색연사는 천연염색 텐셀사를 사용한 것으로, 장미, 해바라기, 치자, 은방울꽃 및 접시꽃의 5종류로 천연염색되었다. 부드러운 색조와 텐셀 특유의 촉감이 특징으로, 워싱가공에 의해 다른 촉감을 부여할 수도 있다.

후쿠야마시는 지난해부터 "도시 브랜드 전략"을 시작하였으며, 시를 대표하는 꽃인 장미를 사용한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섬유를 활용해 현지 봉제 및 워싱가공 업체와 제휴하여 완제품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시노하라 텍스타일(주)의 천연염료 염색 텐셀을 이용한 멜란지 데님제품>

♣ 섬유뉴스 (2014. 6. 26)